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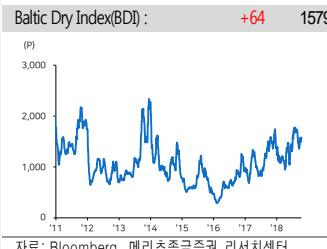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종가 (원)	1D	1M	3M	YTD	PER(x)		PBR(x)		ROE (%)	
				(%)	(%)	(%)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8,887.8	16.6	128,500	0.8	-0.8	34.7	33.9	895	42.9	0.6	0.6	0.7	1.4
현대중공업주	6,205.2	20.5	381,000	1.6	-2.3	9.6	0.0	5.1	4.3	0.7	0.6	14.1	14.7
현대알렉트릭	696.0	4.9	68,200	2.9	6.4	162	-40.2	6.5	5.6	0.6	0.5	9.3	9.7
현대건설/기계	1,185.2	7.9	120,000	3.4	1.3	-3.6	-29.0	7.6	5.6	0.8	0.7	11.7	13.9
삼성중공업	4,624.2	18.1	7,340	1.2	-6.9	14.3	13.5	463	23.0	0.4	0.4	1.0	1.9
대우조선해양	3,586.0	9.6	33,450	1.7	7.0	31.4	140.6	8.1	16.7	1.0	0.9	12.8	5.6
현대미포조선	1,918.0	9.8	95,900	0.0	-2.7	20.0	21.9	20.7	14.9	0.7	0.7	3.6	4.8
한진중공업	215.3	6.8	2,030	1.2	-23.4	-30.0	-38.7	40.8	102	0.3	0.3	0.7	2.8
현대엘리베이터	2,688.7	22.6	99,000	4.5	-13.9	19.4	82.0	17.5	17.0	2.4	2.1	14.6	13.3
두산밥캣	3,794.4	26.5	37,850	-0.5	4.6	24.3	7.1	13.9	13.1	1.1	1.0	7.4	7.6
현대로템	2,227.0	2.3	26,200	3.6	-17.0	0.2	39.7	33.8	23.0	1.5	1.4	4.5	6.3
하이록코리아	340.3	48.9	25,000	0.8	5.0	4.6	11.1	11.3	104	1.0	0.9	8.8	9.0
성광밴드	364.7	16.0	12,750	0.4	0.8	14.9	27.8	1,127.1	45.7	0.8	0.8	0.1	1.8
태광	360.4	12.8	13,600	-2.9	-3.9	22.0	12.9	81.2	39.7	0.8	0.8	1.0	2.1
두산중공업	1,476.0	14.5	12,600	0.0	-15.2	-11.6	-17.9	23.5	7.2	0.4	0.4	2.4	5.3
두산인프라코어	1,869.3	20.8	8,980	2.9	-4.6	-3.0	3.3	5.9	5.5	1.0	0.9	17.6	16.1
HSD에프진	141.3	4.3	4,290	3.9	0.7	7.4	67.0	N/A	N/A	N/A	N/A	N/A	N/A
한국항공우주산업	3,065.6	10.1	31,450	2.8	-30.9	-17.5	-33.7	28.8	21.6	2.7	2.4	9.3	11.8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438.9	11.9	27,650	0.0	3.9	23.4	-22.2	39.3	19.5	0.7	0.6	2.0	3.4
LIG넥스원	743.6	8.1	33,800	-1.2	-7.5	-5.5	-43.5	36.1	17.3	1.2	1.2	3.4	6.8
태웅	242.1	4.8	12,100	0.8	-18.5	-16.6	-37.5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214.5	5.7	7,950	-0.3	2.2	27.8	57.4	-24.4	25.6	2.9	2.7	-11.0	10.9
한국카본	296.7	13.7	6,750	-0.4	-1.2	13.6	25.9	104.7	23.4	0.9	0.9	0.9	4.0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IW: 신조선가 지수 130p, 중고선가 지수 99p 기록

Clarksons에 따르면 신조선가 지수는 130p, 중고선가 지수는 99p로 전주와 동일함. 현대중공업은 그리스 Thenamaris에서 17.4만CBM급 LNG선 울선 1척을 수주했고, 인도는 2021년 예정. 현대삼호중공업은 Frederiksen 그룹에서 17.4만CBM급 LNG선 2척을 수주했고, 인도는 2021년 상반기로 예정됨. (Clarksons)

Saudi Aramco close to dishing five major offshore contracts

사우디 Aramco는 10억달러 규모 Berri를 포함, 최소 5개 Offshore 프로젝트 개발을 준비 중. 입찰을 시작했고 몇 주 내에 계약이 체결될 전망. 프로젝트 총 규모는 30억달러에 달함. LTA 계약을 체결한 5개 업체인 McDermott, Dynamic Industries, Saipem, L&T-Subsea7, NPCC가 경쟁할 전망임. (Upstream)

'New era' as Ensco and Rowan agree merger

시추업체 Ensco와 Rowan의 합병으로 시추장비 82기를 보유한 120억달러 규모 회사가 탄생할 전망임. 시추장비는 Jack-up 54기와 Floater 28기로 구성될 전망임. Ensco 관계자는 2019~21년 시추장비 입찰 증가를 전망함. 두 회사의 합병 시너지는 연 1.5억달러 비용절감을 목표함. (Upstream)

H-Line orders \$124m LNG capesize duo

H-Line은 현대삼호중공업에 18만DWT급 LNG추진 벌크선 2척을 발주했다고 알려짐. 발주규모는 1억 2,380만달러(1,400억원)으로, 인도는 2021년 예정됨. 해당 선박은 한국-호주 경로에 사용될 예정임.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당 선박에 2020년 환경규제에 대응한 친환경설비 장착에 96억원을 지원함. (TradeWinds)

"현대상선에 연내 8천억원 수출"…정부, 정상화 지원방안 마련

한국해양진흥공사와 산업은행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현대상선 정상화 지원방안'을 마련, 연말까지 8천억원 규모 자본을 확충하는 방안을 협의 중으로 알려짐. 현대상선이 신증자분증권(영구채)을 발행하면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각각 4천억원씩 출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알려짐. (연합뉴스)

드라이벌크 시장 호재 많다

Pacific Basin 관계자에 따르면 드라이벌크 시장에서 1) IMO 2020 환경규제, 2) 신조선 발주량 감소, 3) 글로벌 GDP 성장세가 호재로 작용할 전망임. 특히 환경 규제가 적용되면 저수함유율을 사용하는 선박은 항속을 줄이고, 스크러버 장착 선박은 개조 공사를 하는 동안 운항을 중지해 수급이 개선될 수 있음. (선박뉴스)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10월 15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10월 15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10월 15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박진한)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원칙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